

#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의 구조에 관한 모델링 연구

<sup>1</sup>장재훈, <sup>2\*</sup>최미리, <sup>3</sup>정성광

## Modeling Study on The Structure of Entrepreneurship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sup>1</sup> Jae-hun Jang, <sup>2\*</sup> Miri Choi and <sup>3</sup>Sung-gwang Jung

### 요약

최근에는 다양한 형태의 창업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창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창업 성과 확대를 위해 창업교육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창업교육 및 지원의 대상과 관심은 대학생과 일반 대중을 넘어 고등학생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경우 창업에 대한 의도확대를 증대시키고자 기업가정신의 역량과 창업태도 및 창업의지의 관계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결과 기업가정신의 역량(창의성, 위험감수성, 혁신성)은 창업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창업태도는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창업태도의 기업가정신 역량(창의성, 위험감수성, 혁신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의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창의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창업태도는 부분매개역할을 하였다. 위험감수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창업태도는 부분매개역할을 하였다. 혁신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창업태도는 완전매개역할을 하였다. 연구결론에서는 본 연구 결과의 요약, 기업가 및 창업에 대한 시사점과 더불어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 Abstract

Recently, support for various types of entrepreneurship has been increasing. At the same time, interest in entrepreneurship education is increasing to expand support for entrepreneurship and improve entrepreneurship performance. Therefore, the scope and interes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support is expanding beyond college students and the general public to include high school students. Accordingly, this study seeks to investigate in more depth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competency, entrepreneurship attitude, and intention to start a business in order to increase the intention to start a busines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entrepreneurship capabilities (creativity, risk-taking, and innovation) had a positive effect on attitude toward entrepreneurship, and attitude toward entrepreneurship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will to start a business.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attitud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capabilities (creativity, risk-taking, and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will are as follows.

Fir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ivity and entrepreneurial will, entrepreneurial attitude played a partial mediating role. Additional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isk tolerance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entrepreneurial attitude played a partial mediating role. Last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novation and entrepreneurial will, entrepreneurial attitude played a complete mediating role. The research conclusion summariz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s implications for entrepreneurs and start-ups, as well as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Keywords:** Entrepreneurship, Innovation, Risk-taking, Creativity, Entrepreneurial attitude, Entrepreneurial intention

<sup>1</sup> 부산경상대학교 경영과, 교수 (jhj1102@bsks.ac.kr)

<sup>2\*</sup> 교신저자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시간강사 (miri103@naver.com)

<sup>3</sup> 동아대학교 교육성과관리센터, 조교수 (jsg4617@dau.ac.kr)

## I. 서론

창업은 개인에 대한 성취와 부를 창출하고 국가적으로 산업구조에 대한 재편 뿐 아니라 경제성장과 신규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원동력이다. 정부, 학교, 사회가 창업교육에 주목하는 이유는 창업가는 태어나는 것에서 육성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전환되면서,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창업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1].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은 일찍이 창업활성화를 통해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려 노력하고 있다[2]. 미국은 1980년대부터 청년들이 새로운 산업을 선도하는 청년 기업가가 될 수 있도록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유럽 역시 1990년대 초반부터 창업 유망 기업을 추천하고,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청년들의 실업 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실제로 선진국들은 이러한 창업지원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는 물론,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었다[3].

2017년에 실시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를 보면 거시경제 시장의 규모, 인프라, 환경 등 분야에서는 우수하지만 경제 시스템 발전에서는 58위로 뒤처져 있다. 이러한 점이 한국의 새로운 대응형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고, 혁신적인 스타트업과 기업가를 육성하는 것이 시급한 이유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적인 화두는 창업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국내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선순환적인 스타트업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정책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특히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기대역시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어려운 국내 및 국외의 현실과 저성장 경제에 대한 정책의 대안으로 창업을 장려하고 다양한 창업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창업을 증대시키기 위해 기업가정신 함양과 고취를 위한 제품 업그레이드, 시제품 개발,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금융지원,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인프라 지원 정책 등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성과중심 창업지원 정책은 창업성공률을 지표로 중시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고 있다. 또한, 창업지원을 받은 창업기업 및 창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 및 추적관리가 없는 상황에서 창업준비가 미비한 창업자만 배출되고 있다.

현재로는 창업지원금 집행에 대한 평가기준은 대부분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한 항목에 대한 검증만 실시하고 있어, 성공적인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가적 자질을 검증하기가 어렵다. 또한, 초기 창업 단계에서는 창업가의 중요한 역량 중 시제품 제작 과정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이 요구되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이다.

창업가의 시제품 개발 중 시제품의 개발까지는 성공하였지만 시장개척 및 마케팅에 대한 역량 부족으로 지속적인 매출을 창출하지 못해 대부분 3년 내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본 연구는 올바른 창업자의 성공을 위해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다양한 선행연구를 통해 기업가정신은 창업을 뜻하는 또 다른 용어로 사용된다. 또한 다양한 창업지원과 교육의 분야에서 기업가 정신을 활용한 창업가의 성과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기업가 정신은 이미 오랜 기간동안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먼저 Schumpeter[4]에 의하면 혁신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가의 재능이나 능력, 새로운 사업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다양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회사를 성장시키려는 확고한 의지라고 하였다.

또한 McClelland[5]에 의하면 자신의 진로와 능력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자기 성취에 대한 믿음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의 관점에서는 창업의지와 창업을 통한 성과의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 연구는 주장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가 정신을 혁신성, 위험감수, 창의성으로 분류한 후 이러한 기업가 정신(혁신성, 위험감수성, 창의성)을 통한 창업의지는 창업태도를 통해 효과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특 기업가정신을 통한 창업의지는 창업태도의 매개적 역할을 통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며 이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첫째, 기업가정신 역량(혁신성, 위험감수성, 창의성)이 창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둘째, 창업태도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셋째, 창업태도는 기업가정신(혁신성, 위험감수성, 창의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매개적 역할을 실시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넷째, 실증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및 가설의 설정

### 2.1 기업가정신(혁신성, 위험감수성, 창의성)

기업가정신은 기업의 크기 및 업력, 업종 등에 제한되지 않고 기업적인 행동에서 모두 나타난다[6]. 또한 기업가정신은 사회적 문제를 완화시켜 사회적 변화를 촉진시키는 기업가의 성향이다[7]. Acs[8]는 기업가정신을 직업과 행동관점에서 폭넓게 정의하여, 직업관점에서 기업가정신은 기업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기업의 수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업의 창출 및 소멸에 관심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 가. 혁신성

Schumpeter[4]는 기업가정신에서 혁신을 핵심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기업의 발전과 자본주의 경제 과정을 향상시키는 핵심요소라고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선행연구에 따르면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라는 면에서 기업가적 과정에서의 혁신성의 역할을 설명하였는데, 그가 제시한 혁신의 방식은 새로운 조합, 신제품 소개, 원재료의 새로운 생산방식 구현, 신시장 개척, 새로운 조직창출 등 신결합으로 설명된다[9]. 혁신성은 새로운 아이디어, 참신성, 실험, 창조적인 프로세스에 대해 지원해주는 기업의 성향으로, 새로운 제품, 서비스 및 프로세스를 창출해준다[10]. 혁신은 매우 중요하므로 혁신이 없으면 신제품이 실패할 수 있다[11]. 조직이 기술혁신을 강조하고, 제품디자인, 시장조사, 광고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프로세스 혁신과 경영실천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경영활동을 말한다.

Miller[12]는 기업가의 혁신성은 외부환경의 불확실성과 제한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조직을 변화시켜 새로운 기회와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기업의 노력이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기업의 욕구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혁신성은 중소기업이 설립된 후에 지속 성장을 위해서 기회탐색과 탐색한 기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CEO가 갖추어야 할 기업가정신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라 할 수 있다.

#### 나. 위험감수성

위험 감수성은 불확실한 결과가 예상되더라도 과감하게 도전하려는 의지, 위험에 무관심하고 위험을 즐기는 정도를 의미한다[13]. 위험감수성은 어떤 위험에도 불구하고 자원을 투자하려는 관리자의 의지라고 할 수 있다 [14]. 위험 감수성을 갖춘 기업가는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 자신의 자원이나 환경, 위험에 관계없이 기회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조직 차원에서의 위험감수성은 새로운 시장에 모험적인 진입이나 불확실한 결과에 대한 대범한 모험으로 설명된다[15]. 이러한 위험감수성향은 불확실한 사업 환경에서 위험선평적 의사결정 도입을 통해 성과창출의 기회를 갖기에 성과지향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경영진의 조직관리 능력이 일정하고 어떠한 사업활동의 위험도 모든 기업들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이며 동일한 위험이라고 가정한다면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기업들이 더 높은 성과와 더 많은 보상을 수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16].

#### 다. 창의성

‘만들다’의 의미를 지닌 create 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창의성(creativity)의 개념은 많은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17]. Creativity의 사전적 의미는 보통의 일상 생활 내에서 독창성, 독창력, 창의성, 그리고 창의력이라는 개념을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창의성은 다양한영역에서 연구되고 있는데, 창의성은 개인이 처해 있는 업무환경인 직무특성, 직무환경,

그리고 동료와 상사와의 관계와 관련된 환경적 특성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18]. 동기이론은 개인이 조직을 위해 창의적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 중 하나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과 개인이 원하는 것 사이의 격차인 개인의 내재적 직무 동기인 동기부여((intrinsic task motivation)가 결정적인 요인이다[19]. 이와 더불어 주의의 통제란 내재적 동기부여의 중요한 기능이다.

Zhou and George[20]는 경영프로세스와 관련된 아이디어 생산도 창의성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Gagné[21]는 끊임없는 학습의지가 창의성을 유발한다고 교육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최근의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Dul, Ceylan, and Jaspers[22]은 27 개 중소기업의 지식 근로자 274 명을 대상으로 리서치하여 분석한 결과, 창의적인 성격, 사회적 조직 작업환경, 물리적 작업환경이 독립적으로 창의적인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밝혀냈다. 상대적 기여도는 창의적 성격, 사회적 조직환경, 물리적 작업환경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Harvey and Berry[23]은 실증분석을 통하여 표현된 창의성의 성격을 변경하여 창의성과 성과 간의 영향 관계를 조사한 결과, 높은 인지보상은 기발함(novelty)과 성과 간의 관계를 강화하는 반면에 유용성(usefulness)과 성과간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성은 조직구성원들의 개인적 특성과 업무와 관련된 환경적 특성, 그리고 환경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의 상호작용으로 생성되는 효용이다.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서로 상호작용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성격적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어떤 상황과, 그리고 이러한 조화가 종업원들이 높은 수준의 창의성을 발휘하게 한다[24].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근거로 다음의 가설을 제시한다.

- H1 : 혁신성은 창업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 위험감수성은 창업태도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 창의성은 창업태도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2 창업태도와 창업의지의 관계

태도의 정의는 특정한 대상에 대해 비호의적 및 호의적, 또는 부정적 및 긍정적 방식으로 일관되게 반응하는 학습된 경향이다[25]. 합리적 행동이론에 의하면 태도란 인간의 행동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변수로 특정 행동에 대한 개인적 평가이며, 이러한 태도는 특정 행동을 수행할 때의 개인적 행동신념에 의해 결정된다고 제시한다[25]

또한 태도는 개인의 미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개인은 특정 대상에 대해 주관적으로 호의적인 태도를 형성하고, 형성된 태도를 바탕으로 미래의 행동을 결정하려고 노력한다[26]. 이러한 현상을 통해 특정 개인이 해당 현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행동하려는 의도도 태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예상한다[27].

Turker & Selcuk[28]에 의하면 창업 의도는 미래 기업가가 자발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가능성을 자체 평가하는 행위이다. 새로운 조직의 설립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창업의 전반적인 과정을 이해하는 기업가의 의지가 중요한 핵심 개념이다.

한편, 창업의지는 창업에 대해 시도하고 이를 구체적인 방식으로 구현하려는 노력과 의지라고 할 수 있다. Hindle, Klyver, Jennings[29]에 따르면 의도적인 행동 모델과 계획된 행동 모델을 인용하여 행동은 계획에 의해 촉발되며 인지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의지는 행동계획의 실행 여부를 설명하고 판단하는 변수라고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를 통해 창업에 대한 태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안한다.

- H4 : 창업태도는 창업의지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3. 기업가정신, 창업태도 및 창업의지의 관계

선행연구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기업가정신의 조작적 정의를 ‘현재 상황에 대한 판단을 통해 불확실한 미래의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마인드’로 정의한다.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과 창업태도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창업의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하여 기존 연구에서 살펴보면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다. 이중 기업가정신 및 창업태도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밝혀져 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창업의지의 증대를 위한 기업가정신, 창업태도 및 창업의지의 관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기업가 정신을 통한 창업의지의 경우 창업태도에 어떠한 형태로 영향을 받는가에 따라 올바른 창업교육의 시사점을 제공하여 보고자 한다.

특히 태도의 변수와 같은 경우 마케팅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이 기업가정신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만 알아보았으며, 창업태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 정신과 창업의지의 올바른 관계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며 기업가정신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창업태도가 어떠한 형태의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근거로 다음의 가설을 제시한다.

- H5-1 : 창업태도는 혁신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할 것이다.
- H5-2 : 창업태도는 위험감수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할 것이다.
- H5-3 : 창업태도는 창의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할 것이다.

### III. 연구모형

####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연구변수들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혁신성, 위험감수성, 창의성의 기업가정신 역량이 창업태도와 창업의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창업태도의 매개역할에 따라 창업역량(혁신성, 위험감수성, 창의성)과 창업의지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아래의 연구모형을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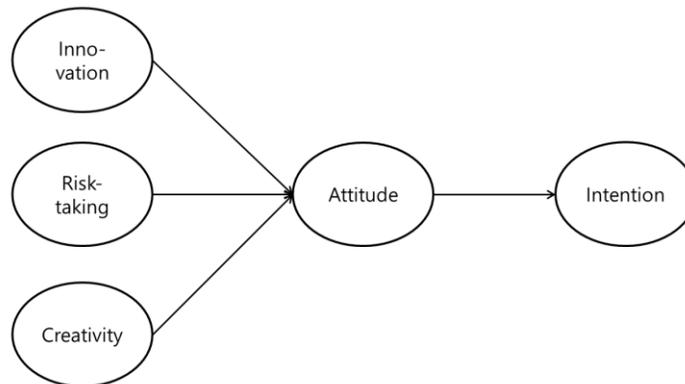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fig 1. Framework

### IV. 연구방법

#### 4.1 자료의 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모형을 위한 설문은 국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20 년 12 월 07 일부터 12 월 18 일까지 12 일 간 수행하였다. 총 880 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었으며 866 부가 회수되었다.

## 4.2 신뢰성 및 타당성

본 연구에서 구성된 혁신성, 위험감수성, 창의성, 창업태도, 창업의지의 연구개념은 반영적 지표(reflective indicators)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따라서 연구개념을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의 내적 일관성을 계산하였다. 한편, 혁신성, 위험감수성, 창의성, 창업태도, 창업의지에 대한 모든 부분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0.8을 넘어 연구개념의 신뢰성을 확인시켜 주었다. 다음으로 각 측정항목의 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탐색적 요인분석은 VARIMAX 회전법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그 결과, 고유값이 2.0 이상의 요인들에 한하여 요인 적재량이 0.7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탐색적 요인분석  
Table 1. Exploratory Factor Analysis(EFA)

	intentions	Innovation	Creativity	attitude	risk-taking
Intention 2	0.915	0.043	0.026	0.228	0.138
intention 3	0.911	0.055	0.04	0.219	0.142
intention 1	0.897	0.079	0.049	0.256	0.108
intention 4	0.856	-0.007	0.026	0.198	0.176
Innovation 1	0.029	0.859	0.252	0.078	0.009
innovation 2	0.076	0.858	0.252	0.065	0.011
innovation 3	0.032	0.853	0.23	0.062	0.009
Creativity 2	0.028	0.225	0.867	0.103	0.016
Creativity 3	0.047	0.231	0.857	0.034	0.006
Creativity 1	0.04	0.284	0.828	0.088	0.046
attitude2	0.249	0.079	0.115	0.892	0.121
attitude1	0.298	0.09	0.07	0.872	0.122
attitude3	0.46	0.073	0.076	0.744	0.183
risk-taking2	0.146	-0.001	0.011	0.101	0.898
risk-taking1	0.108	-0.036	0.064	0.122	0.865
risk-taking3	0.192	0.066	-0.013	0.104	0.818
Total	3.650	2.423	2.386	2.384	2.372
% of Variance	22.811	15.141	14.914	14.901	14.823
Cumulative %	22.811	37.952	52.866	67.767	82.590

표 2. 신뢰성 분석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Cronbach's $\alpha$
Intentions	0.952
Innovation	0.876
Creativity	0.869
Attitude	0.909
risk-taking	0.854

이와 함께 추가적인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FA)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전반적 적합도의 평가기준에 대해 만족시켰다. 전반적 모델 적합도는 Chi-Square= 256.43(df=94, p=0.000), GFI= .963, AGFI= .947 CFI= .984, NFI= .976, TLI= .980, RMSEA= .045 로 확인되었으며, 각 구성개념의 요인부하량에 대한 t 값 역시 유의하게 나타났다(t 값>20.0). 이에 혁신성, 위험감수성, 창의성, 창업태도, 창업의지의 측정항목들이 구성 개념의 집중타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각 척도들이 연구 단위들의 대표성을 갖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개념 신뢰도, 평균분산추출(AVE)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개념 신뢰도는 일반적 추천 기준치인 .90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분산 추출은 추천 기준치인 .50 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개념의 항목들에 대해 해당 연구단위에 대한 대표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표 3. 확인적 요인분석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CFA)

	Estimate	C.R.	construct reliability	AVE
creativity2	1		0.910	0.596
creativity1	0.937	27.717		
creativity3	0.965	27.266		
risk-taking2	1		0.888	0.528
risk-taking3	0.850	24.546		
risk-taking1	0.872	27.851		
intentions2	1		0.937	0.623
intentions1	0.956	43.799		
intentions3	0.916	38.971		
intentions4	0.924	36.315		
innovation2	1		0.903	0.571
innovation3	0.936	28.327		
innovation1	0.974	30.432		
attitude1	1		0.925	0.647
attitude3	0.993	30.636		
attitude2	0.937	34.124		

$\chi^2 = 256.43(df=94, p=0.000)$ , GFI= .963, AGFI= .947 CFI= .984, NFI= .976, TLI= .980, RMSEA= .045

표 4. 판별타당성  
Table 4. Discriminant Analysis

	creativity	risk-taking	intentions	innovation	Attitude
Creativity	0.596				
risk-taking	0.005	0.528			
Intentions	0.016	0.123	0.623		
Innovation	0.373	0.002	0.020	0.571	
Attitude	0.057	0.118	0.383	0.050	0.647

마지막으로 유사한 두 연구개념 간의 명확한 구분을 확인하기 위해 판별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판별타당성 평가는 각 평균분산추출 개념 간의 상관계수 제곱 값( $\geq 2$ )을 상회하는지의 여부를 통해 검증한다(Fornell and Larcker 1981). 한편, 본 연구의 판별 타당성 검증 결과 평균분산추출값이 해당 상관계수 제곱값보다 크게 나타나 본 연구의 판별 타당성이 확보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하여 본 연구의 내적타당성과 판별타당성이 증명되었다.

### 4.3. 연구가설의 검증

표 5. 경로분석  
Table 5. Path Analysis

			estimate	C.R.	P-value	support
H1	innovation → attitude	+	0.141	2.623	0.009	○
H2	risk-taking → attitude	+	0.397	8.892	0.000	○
H3	creativity → attitude	+	0.171	2.886	0.004	○
H4	attitude → intentions	+	0.743	16.424	0.000	○

Chi-square= 256.43(df=94, p=0.000), GFI= .963, AGFI= .947 CFI= .984, NFI= .976, TLI= .980, RMSEA= .0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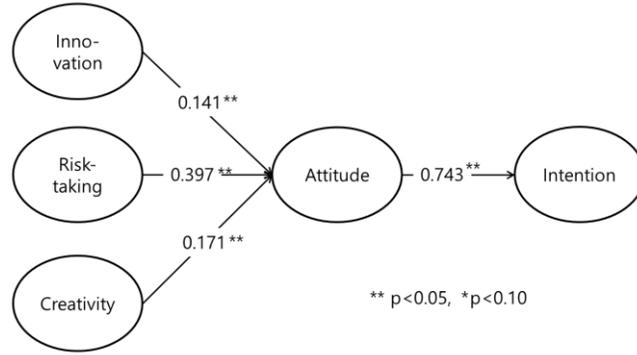


그림 2. 경로분석  
Figure 2. Path Analysis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을 설정한 다음 AMOS 25.0 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X^2= 256.43(df=94, p=0.000)$ ,  $GFI= .963$ ,  $AGFI= .947$   $CFI= .984$ ,  $NFI= .976$ ,  $TLI= .980$ ,  $RMSEA= .045$  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은 가설검증에 충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른 가설검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혁신성이 창업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H1 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 값은 0.141( $P<.01$ )로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둘째, 위험감내도가 창업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H2 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 값은 0.397( $P<.01$ )로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셋째, 창의성이 창업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H3 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는 0.171( $P<.01$ )로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마지막으로 창업태도가 창업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H4 의 가설을 검증한 결과, 경로계수 값은 0.743( $P<.01$ )으로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4.4. 기업가 정신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창업태도의 매개효과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혁신성, 위험감수성, 창의성)과 창업의지 사이에서 창업태도의 매개역할을 검증하여 보고자 한다.

가. 혁신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창업태도의 매개효과

혁신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창업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 간의  $X^2$  변화량을 비교한 결과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Delta X^2$  값이 30.407 로 확인되어 두 모형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Delta X^2=0.668 < X^2_{05}(1)=3.84$ ). 이에 따라 혁신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창업태도는 완전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6. 경쟁모형 비교분석(혁신성-창업태도-창업의지)  
Table 6. Comparative analysis of competitive model(Innovativeness-Attitude-Intention)

model	$X^2$	df	p-value	$\Delta X^2(df1)$
partial mediation model	256.432	94	0.000	0.668
full mediation model	257.100	95	0.000	

경로분석 결과 혁신성이 창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계수는 0.141( $P<.01$ )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창업태도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계수는 0.743( $P<.01$ )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혁신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계수는 0.049( $P>.05$ )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표 7. 경로계수(혁신성-창업태도-창업의지)  
Table 7. Path coefficient(Innovativeness-Attitude-Intention)

	direction	estimate	C.R.	p-value
Innovation → attitude	+	0.141	2.623	0.009
Attitude → intention	+	0.743	16.424	0.000
innovation → intentions	+	0.049	0.818	0.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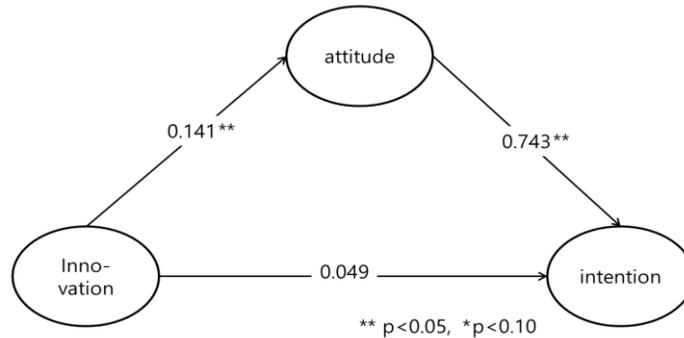


그림 3. 경로계수(혁신성-창업태도-창업의지)  
Figure 3. Path coefficient(Innovativeness-Attitude-Intention)

혁신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창업태도의 매개효과에 통계적 유의성 검증(Biascorrected confidence intervals)을 위해 AMOS 25.0을 통하여 반복횟수 1000회를 신뢰구간 95%에서 설정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결과 신뢰구간 95% 수준에서 하한 값과 상한 값이 0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혁신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창업태도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창업태도는 혁신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 5-1은 지지되었다.

표 8. 효과분해 (위험감수성-창업태도-창업의지)  
Table 8. Effect analysis(Risk taking -Attitude-Intention)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Confidence interval
innovation → intentions	0.049	0.105	0.154	0.016~0.186**

\* P<.10, \*\* P<.05, \*\*\* P<.01

나. 위험감수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창업태도의 매개효과

위험감수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창업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 간의 X<sup>2</sup> 변화량을 비교한 결과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ΔX<sup>2</sup> 값이 23.512로 확인되어 두 모형 간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ΔX<sup>2</sup> = 23.512 > X<sup>2</sup>.05(1) = 3.84). 이에 따라 위험감수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창업태도는 완전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9. 경쟁모형 비교분석(위험감수성-창업태도-창업의지)  
Table 9. Comparative analysis of competitive model(Risk taking-Attitude-Intention)

Model	X <sup>2</sup>	df	p-value	Δ X <sup>2</sup> (df1)
partial mediation model	256.432	94	0.000	23.512
full mediation model	279.944	95	0.000	

경로분석 결과 위험감수성이 창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계수는 0.397( $P<.01$ )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창업태도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계수는 0.743( $P<.01$ )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위험감수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계수는 0.249( $P<.05$ )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10. 경로계수(위험감수성-창업태도-창업의지)  
Table 10. Path coefficient(Risk taking -Attitude-Intention)

	direction	estimate	C.R.	p-value
risk-taking → attitude	+	0.397	8.892	0.000
Attitude → intention	+	0.743	16.424	0.000
risk-taking → intention	+	0.249	4.849	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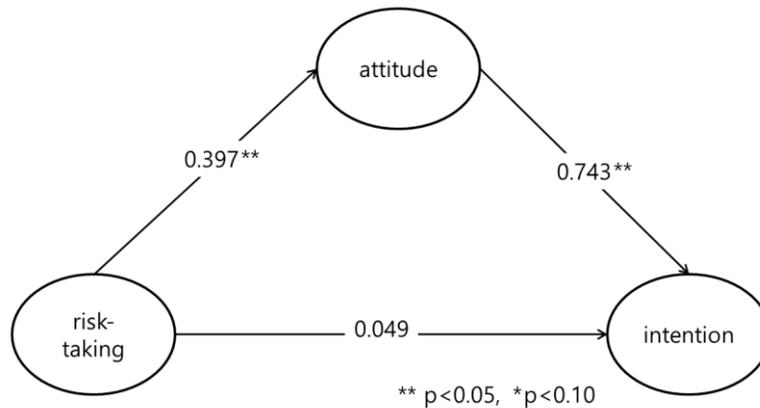


그림 4. 경로계수(위험감수성-창업태도-창업의지)  
Figure 4. Path coefficient(Risk taking -Attitude-Intention)

위험감수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창업태도의 매개효과에 통계적 유의성 검증(Biascorrected confidence intervals)을 위해 AMOS 25.0 을 통하여 반복횟수 1000 회를 신뢰구간 95%에서 설정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결과 신뢰구간 95% 수준에서 하한 값과 상한 값이 0 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위험감수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창업태도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창업태도는 위험감수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 5-2 는 지지되었다.

표 11. 효과분해 (위험감수성-창업태도-창업의지)  
Table 11. Effect analysis(Risk taking -Attitude-Intention)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Confidence interval
risk-taking → intention	0.249	0.295	0.544	0.024~0.200**

\* P<.10, \*\* P<.05, \*\*\* P<.01

다. 창의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창업태도의 매개효과

창의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창업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 간의  $X^2$  변화량을 비교한 결과 부분매개모형과 완전매개모형의  $\Delta X^2$  값이 1.005 로 확인되어 두 모형 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Delta X^2 = 0.397 < X^2_{.05}(1) = 3.84$ ). 이에 따라 창의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창업태도는 완전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표 12. 경쟁모형 비교분석(창의성-창업태도-창업의지)  
Table 12. Comparative analysis of competitive model(Creativity -Attitude-Intention)

Model	X <sup>2</sup>	df	p-value	Δ X <sup>2</sup> (df1)
partial mediation model	256.432	94	0.000	1.005
full mediation model	257.437	95	0.000	

경로분석 결과 창의성이 창업태도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계수는 0.171(P<.01)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창업태도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계수는 0.743(P<.01)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창의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계수는 0.066(P>.05)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13. 경로계수(창의성-창업태도-창업의지)  
Table 13. Path coefficient(Creativity -Attitude-Intention)

	Direction	estimate	C.R.	p-value
creativity → attitude	+	0.171	2.886	0.004
Attitude → intention	+	0.743	16.424	0.000
creativity → intention	-	0.066	-1.003	0.3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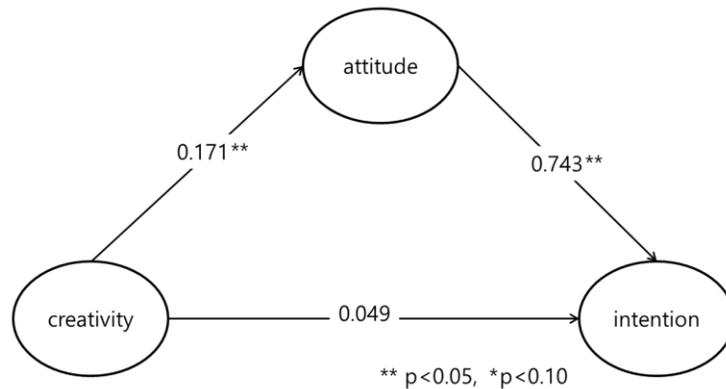


그림 5. 경로계수(창의성-창업태도-창업의지)  
Figure 5. Path coefficient(Creativity -Attitude-Intention)

창의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창업태도의 매개효과에 통계적 유의성 검증(Biascorrected confidence intervals)을 위해 AMOS 25.0 을 통하여 반복횟수 1000 회를 신뢰구간 95%에서 설정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결과 신뢰구간 95% 수준에서 하한 값과 상한 값이 0 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창의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창업태도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창업태도는 창의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가설 5-3 은 지지되었다.

표 14. 효과분해 (창의성-창업태도-창업의지)  
Table 14. Effect analysis(Creativity -Attitude-Intention)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Confidence interval
creativity → intention	-0.066	0.127	0.061	0.016~0.223**

\* P<.10, \*\* P<.05, \*\*\* P<.01

## IV. 결론 및 시사점

### 5.1.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창업교육을 위해 기업가 정신(혁신성, 위험감수성, 창의성)이 창업태도와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기업가 정신(혁신성, 위험감수성, 창의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창업태도의 매개적 역할에 대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창업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가 정신 역량은 혁신성, 위험감수성, 창의성이 밝혀졌다. 이 중에서 위험감수의 경로계수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나 창업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인임이 확인 되었으며, 다음으로 창의성, 위험감수성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창업태도는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창업태도는 기업가정신 역량(혁신성, 위험감수성, 창의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가 정신 역량으로 혁신성, 위험감수성, 창의성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변수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경우 기업가 정신의 역량을 창의성을 포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둘째, 다양한 창업자들의 창업의지를 위해서는 먼저 긍정적인 창업태도의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많은 연구에서 태도와 행동의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본 연구의 경우 창업의지에 영향을 받은 창업태도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기에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 정신(혁신성, 위험감수성, 창의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창업태도의 매개적 역할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특별히 위험감수성과 창의성과 창업의지의 관계에서 창업태도는 완전 매개의 역할을 함에 따라 매우 중요한 수준이었다.

###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창업태도의 매개적 효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성별 직업 등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국내를 중심으로 기업가 정신, 창업태도, 창업의지의 관계로 알아보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가 미국, 일본, 중국 등의 국가 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 VI. 참고문헌

- [1] Ronstadt, Robert(1985), "The Educated Entrepreneurs: A New Era of Entrepreneurial Education is Beginning," *American Journal of Small Business*, 10(1), 7-23.
- [2] Jardim, Jacinto, Ana Bárto, and Andreia Pinho(2021), "Towards A Global Entrepreneurial Culture: A Systematic Review of The Effectiveness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s," *Education Sciences*, 11(8), 398.
- [3] Soo-kyung, Kim (2023), " Mid- to Long-term Development Strategies of Business Incubation Centers - Based on Interviews with Start-up Companies and Benchmarking of Business Incubation Centers in 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s & Management*, 30(4), 1-9.
- [4] Schumpeter, Joseph A.(1947), "The Creative Response in Economic History,"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7(2), 149-59.
- [5] McClelland, David C.(1965), "N Achievement and Entrepreneurship: A Longitudinal s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4), 389.
- [6] Kraus, Sascha, Matthias Filser, Michele O'Dwyer, and Eleanor Shaw(2012), "Social Entrepreneurship: An Exploratory Citation Analysis," *Review of Managerial Science*, 8, 275-92.
- [7] Alvord, Sarah H., L. David Brown, and Christine W. Letts(2004), "Social Entrepreneurship and

- Societal Transformation: An Exploratory Study," *The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40(3), 260-82.
- [8] Acs, Zoltan(2006), "How is Entrepreneurship Good for Economic Growth," *Innovations*, 1(1), 97-107.
- [9] Beom-seong Kim (2012), " A Study on the Entrepreneur's Psychological Traits and Entrepreneurship -Focus on the Process Model-," *The Journal of Eurasian Studies*, 9(1), 119-52.
- [10] Lumpkin, G. Tom and Gregory G. Dess(1996), "Clarifying The Entrepreneurial Orientation Construct and Linking It to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1(1), 135-72.
- [11] Frishammar, Johan and Sven Åke Hörte(2007), "The Role of Market Orientation and Entrepreneurial Orientation for New Product Development Performance in Manufacturing Firms," *Technology Analysis & Strategic Management*, 19(6), 765-88.
- [12] Miller, Danny(1983), "The Correlates of Entrepreneurship in Three Types of Firms," *Management Science*, 29(7), 770-91.
- [13] Sexton, Donald L. and Nancy B. Bowman(1986), "Validation of A Personality Index: Comparativ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alysis of Female Entrepreneurs, Managers, Entrepreneurship Students and Business Students," *Frontiers of Entrepreneurship Research*, 1986, 40-51.
- [14] Miller, Danny and Peter H. Friesen(1978), "Archetypes of Strategy Formulation," *Management Science*, 24(9), 921-33.
- [15] Covin, Jeffrey G. and Dennis P. Slevin(1991), "A Conceptual Model of Entrepreneurship as Firm Behavio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1), 7-26.
- [16] Altuntas, Muhammed and Jannes Rauch(2017), "Concentration and Financial Stability in The Property-Liability Insurance Sector: Global Evidence," *The Journal of Risk Finance*, 18(3), 284-302.
- [17] Zawada, Britta(2006), "Linguistic Creativity from A Cognitive Perspective," *Southern African Linguistics and Applied Language Studies*, 24(2), 235-54.
- [18] Shalley, Christina E, Jing Zhou, and Greg R. Oldham(2004), "The Effects of Personal and Contextual Characteristics on Creativity: Where Should We Go from Here?," *Journal of Management*, 30(6), 933-58.
- [19] Amabile, Teresa M.(1988), "A Model of Creativity and Innovation in Organizations,"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10(1), 123-67.
- [20] Zhou, Jing and Jennifer M. George(2001), "When Job Dissatisfaction Leads to Creativity: Encouraging The Expression of Voi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4(4), 682-96.
- [21] Gagné, Marylène(2009), "A Model of Knowledge-Sharing Motivation," *Human Resource Management: Published in Cooperation with the School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e University of Michigan and in alliance with the Society of Human Resources Management*, 48(4), 571-89.
- [22] Dul, Jan, Canan Ceylan, and Ferdinand Jaspers(2011), "Knowledge Workers' Creativity and The Role of The Physical Work Environ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50(6), 715-34.
- [23] Harvey, Sarah and James W. Berry(2023), "Toward A Meta-Theory of Creativity Forms: How Novelty and Usefulness Shape Creativity,"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48(3), 504-29.
- [24] Mannucci, Pier Vittorio and Christina E. Shalley(2022), "Embracing Multicultural Tensions: How Team Members' Multicultural Paradox Mindsets Foster Team Information Elaboration and Creativity,"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73, 104191.
- [25] Fishbein, M., & Ajzen, I. (1974). Attitudes Towards Objects as Predictors of Single and Multiple Behavioral Criteria. *Psychological Review*, 81(1), 59.
- [26] Milfont, T.L., Duckitt, J., & Wagner, C. (2010). A Cross-Cultural Test of The Value-Attitude-Behavior Hierarchy.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40(11), 2791-2813.
- [27] Sánchez, R. A., & Hueros, A. D. (2010). Motivational Factors That Influence The Acceptance of Moodle using TAM.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6(6), 1632-1640.
- [28] Turker, D., & Selcuk, S. S. (2009). "Which Factors Affect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33(2), 142-159.
- [29] Hindle, K., Klyver, K., & Jennings, D. F. (2009). An "informed" Intent Model: Incorporating Human Capital, Social Capital, and Gender Variables into The Theoretical Model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 *Understanding The Entrepreneurial Mind: Opening The Black Box* (pp. 35-50). New York, NY: Springer New York.

## 저자소개

---



### 장재훈 (Jae-hun Jang)

2006 년 : 동아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석사)  
 2014 년 : 동아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박사)  
 2013 년 ~ 현 재 : 부산경상대학교 경영과 교수

관심분야 : 유통마케팅, 상권분석, 소비자행동, 판매원관리 등



### 최미리 (Miri Choi)

2013 년 : 동아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석사)  
 2021 년 : 동아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박사)  
 2023 년 ~ 현 재 :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영학과 시간강사

관심분야 : 소비자행동, SNS 마케팅, 유통관리, 광고론, 빅데이터 분석 등



### 정성광 (Sung-gwang Jung)

2012 년 : 동아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석사)  
 2016 년 : 동아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박사)  
 2022 년 ~ 현 재 : 동아대학교 교육성과관리센터 조교수

관심분야 : 마케팅 조사론, 소비자 행동, 창업경영, 국제 마케팅 등

---